

II. 08학년도 인하대 제1차 논술모의고사 해설

가. 공통계열

1. 출제문

【1】 (가), (나), (다), (라)의 모든 제시문에는 서로 다른 인식이나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4개의 제시문에서 이를 찾아 각각 요약하시오(각각 100±10자).

【2】 제시문 (다)의 주제를 제시문 (가)에 적용하여,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300±30자).

(가)

교육은 전체 사회의 한 하위 체계로서 사회의 존속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클락은 산업화된 현대사회는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되며, 교육 체계는 이들을 길러 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 체계는 직업 체계의 분화에 맞춰 분화되어 각 전문 분야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재능과 능력의 선별 작업은 교육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별 작업이 교육 체계의 입학 단계에서 또는 교실 수업, 상담 등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졸업 단계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클락의 분석은 뒤르켐의 사회 분화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근대화의 진행에 의한 사회 분화 현상은 교육에도 분화를 가져오고, 그리하여 각 수준의 과정에 알맞은 사람을 선별하여 훈련시키기 위한 선발 기능의 강화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콜린스는 산업의 발달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수준이 분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교육을 요구하게 되어 교육 수준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계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점점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학교의 선발 제도는 사회적 평등의 구현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일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쟈크스는 “학교는 일차적으로 사람을 측정하고 표지를 붙이는, 말하자면 선발과 증명 기관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회화 활동은 이차적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나)

길 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니?”하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일곱 색깔!”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을 일곱 가지로 인식하고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들만이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 제창한 ‘무지개의 색깔은 일곱 가지다’라는 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1668년, 뉴턴이 스물네 살 때, 캠브리지 대학의 실험실 암실에서 벽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반대편 벽에 비추고 있었다. 그랬더니 벽에 여러 가지 색깔이 띠 모양으로 나타났다. 당시로서는 대 발견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각각의 색마다 명확한 경계가 없었다. 일곱 색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뉴턴의 주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뉴턴은 자신의 저서 『광학』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무지개가 일곱 색깔이 되기까지는 뉴턴이 살았던 시대의 사고방식이 다분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뉴턴이 살던 시대에는 수학과 과학, 기하학과 더불어 음악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음악에서 말하는 ‘도’에서 ‘시’까지의 음계, 이른바 한 옥타브는 7음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7이라는 숫자가 자연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숫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색채의 기본으로 빨강, 파랑, 노랑, 녹색, 진보라 다섯 가지 색이 있었다. 그런데 뉴턴은 프리즘으로 만들어진 색의 띠를 보고 나머지 두 색을 더해 일곱 색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빨강과 노랑 사이에 과일 오렌지에서 따온 ‘주황’의 색명을, 또 파랑과 진보라 사이에 당시 인도에서 수입된 식물 염료의 색에서 따온 인디고 블루, 즉 ‘감색’의 색명을 추가해서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정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처럼 여기는 일곱 색깔 무지개는 뉴턴의 ‘무지개 7색설’을 학교 교육에서 채택해 보급하면서 지식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일곱 빛깔 무지개’, ‘빨 · 주 · 노 · 초 · 파 · 남 · 보’를 마치 주문처럼 외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완전 굳어져버린 것이다.

(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정부 규제가 있어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된다. 반면에 각종 대형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원인이 정부의 감시 내지 규제 소홀에서 기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

런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 경쟁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의 부실을 치유하고 독과점의 횡포를 막는 등 정부의 규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환경 · 보건 · 산재 예방 · 시설물 관리 등 국민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라)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의 조직적 뼈대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켜 그들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긍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증가로 인한 비용 인상 부분을 보험료의 인상으로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보험회사의 전체 비용 중에서 관리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사실은 인상 요인의 발생을 상당 부분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험사의 수입으로 산정되지만, 사고로 인한 비용은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다. 따라서 사고의 감소는 보험회사에 해당 기간의 금융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보험회사의 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의 감소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박애주의자나 안전기관이 아니라 상업적 위험을 인수하는 기관이다. 즉 사고율이 현재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아야만 보험 산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하자.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까? 피보험자의 위험 수준이 감소하게 되므로 운전자의 보험료도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의 현저한 감소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 및 부품 · 수리업체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곧 새로운 차와 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동차 관련 모든 업계의 이익은 물론 고용기회도 감소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교통사고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업계는 발전하게 되므로 보험회사가 사고율 감소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이다.